

카타르 왕권 계승의 의의와 전망

작성자 : 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 2013년 6월 28일

■ 카타르의 하마드(Sheikh Hamad bin Khalifa Al Thani) 국왕은 6월 25일 아들인 타밈(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에게 왕권을 이양한다고 밝힘.

- 하마드 국왕은 1995년 무혈 쿠데타로 왕위에 올라 개방개혁 정책을 펼치고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카타르를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최근 왕권 이양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이 있었으며 6월 25일에 하마드 국왕(61세)은 두 번째 부인인 모자(Sheikha Mozah Bint Nasser Al Missned) 왕비의 둘째 아들 타밈(33세)에게 왕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발표함.
 - 하마드 국왕은 25일 7분간의 짧은 연설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 책임을 넘겨줄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이들에게 열어줄 때가 되었다” 고 언급 하면서 왕권 승계를 공표함.

■ 걸프 왕정 국가에서 국왕이 타계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왕세자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타밈에 대한 권력 이양은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과 같은 걸프 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왕의 서거 이후에 왕세자가 그 왕위를 계승해왔음.
- 그러나 카타르의 하마드 국왕은 왕세자에 대한 정권 이양을 위한 준비를 장기간 추진해 왔으며 걸프 국가 중 최초로 국왕 생전에 왕권을 이양하였음.
 - 타밈은 2003년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카타르 투자청 이사장 및 군 총부사령관으로 재임 하였으며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을 수립하는데도 참여하는 등 국정 운영에 지속해서 참여해왔음.¹⁾
 - 하마드 국왕이 신장 이식 후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왕권을 이양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미 3년 전부터 이를 준비해왔다고 전해짐.

■ 타밈의 왕권 승계 후 카타르의 대내외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외교보다는 국내 안정에 보다 초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1) 국가비전 203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5개 과제에 대한 국가 정책임.

- 타밈은 하마드 국왕이 추구해왔던 다각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됨.
 - o 하마드 국왕은 외교적으로 미국, EU 등의 서방 진영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튀니지,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함과 동시에 시아파인 이란과도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사안에 따라 실용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였음.
- 한편 왕권 승계 후 국내 안정과 2022년 월드컵 준비 및 인프라 개발 등 국내 현안에 보다 중점을 두며 국정을 운영할 것을 보임.
- 셰이크 하마드 국왕은 권좌에서 물러났으나 타밈의 정치적 입지가 확보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하마드 국왕의 2번째 부인이며 타밈 국왕의 모친인 모자 왕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
 - o 카타르의 힐러리로 알려진 모자 왕비는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의 이사장으로 양성평등, 교육,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하마드 국왕의 국정운영 및 개혁·개방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자료: Al Jazeera, BBC, Huffington Post, 연합뉴스〉